

2023 몽골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1. 개요	4
가. 시장 전망	4
나. 주요 경제 지표	5
2. 2023년 주요 이슈 및 전망	6
가. 몽골의 향후 10년을 이끌 '신新부흥정책' 발표	6
나.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으로 투자 유치 확대 노력	7
다.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한 경제 활력 모색	8
라. 몽골의 최대 구리 광산 개발로 경기 부양 기대	9
마. 내륙 국가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적극적 외교 노력	11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14
2. 시장 분석	22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22
나. 수출	23
다. 투자	28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협력 의제	30
가. 교역	30
나. 투자	33
다. 협력 유망 분야	35

III

진출전략

1.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38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39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47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49
첨부 3. '23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50
첨부 4. '23년도 정치·경제 주요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51

2023

몽골 진출전략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 2023년 몽골 경제성장률은 5%대로 전망

- 2022년 경제성장률은 약 2%대로 전망되고 있으나 2023년에는 세계은행 및 국제기구들의 전망치는 5%대 이상으로 추정
 - 2022년 1분기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의 영향으로 -3.9%의 성장률이 예상되면서 경기 침체가 우려되었으나, 하반기부터 광물 수출량 증가로 약 2.4% 경제성장률이 기대됨
 - 2023년 상반기 오유티고이 지하광산 가동에 따라 몽골 경제가 급성장하여 약 5%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높은 물가상승률(16.5% ↑)과 환율 불안으로 내수경기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었으나, 하반기 러시아와 에너지 가격 안정화 합의로 물가 안정화 기대
 - * WB('22년 2.5%, '23년 5.8%), ADB('22년 2.3%, '23년 5.6%), IMF('22년 1%, '23년 6%)
 - ** OT 구리광산 2차(지하광산) 생산 본격 착수에 따라 몽골 경제 기여도가 약 3배 증가 전망

나. 주요 경제 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인구	천 명	3,120	3,178	3,238	3,296	3,354	3,420	3,480*	3,540*
명목GDP	십억 달러	11.2	11.5	13.2	14.2	13.3	15.1	18.1*	21.1*
1인당 명목GDP	달러	3,866	3,997	4,210	4,352	4,061	4,417	5,205*	5,952*
실질성장률	%	1.2	5.3	6.9	6.6	-4.6	1.4	2.5**	5.8**
실업률	%	10.0	8.8	7.8	10.0	7.0	7.8	8.1**	n/a
소비자물가 상승률	%	0.7	6.4	8.1	5.2	2.3	13.4	14.4**	11.9**
재정수지 (GDP 대비)	%	-15.2	-6.22	0.01	-2.0	-12.1	-6.6	3.3**	0.2*
총수출	백만 달러	4,916	6,201	7,012	7,619	7,576	9,247	12,298*	n/a
(對韓 수출)	"	8.5	11.6	21.2	27.8	21.4	32.9	58.8*	n/a
총수입	"	3,358	4,337	5,875	6,127	5,298	6,848	9,108*	n/a
(對韓 수입)	"	197.9	197.4	262.2	267.0	235.7	294.2	353*	n/a
무역수지	백만 달러	1,558	1,863	1,137	1,492	2,277	2,398	3,190*	n/a
경상수지	"	-669.7	-1,155	-1,902	-2,161	-674	-2,108	n/a	n/a
환율 (연평균)	현지국/US\$	2,145	2,440	2,472	2,660	2,750	2,849	3,053*	3,393*
해외 직접 투자	억 달러	0.14	0.49	0.37	1.27	0.26	1.13	n/a	n/a
외국인 직접 투자	억 달러	-41.56	14.94	21.73	24.43	17.19	21.39	25.90*	n/a

주 : * 전망치(Statista.com), ** 추정치(ADB, IMF, 몽골 중앙은행)

자료 : IMF, WB, ADB, UNCTAD, 한국무역협회, 몽골통계청, 몽골 중앙은행

2

2023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 몽골은 코로나 이후 경기 부양 및 장기 경제개발 계획인 비전 2050의 실행을 위해 향후 10년을 건인할 '新부흥정책' 발표
- ※ '23년 이후 몽골 최대 구리 광산인 '오유폴고이 광산'의 본격적 가동 및 몽골 정부의 적극적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 등 '23년 경제성장률은 5%대까지 예상

가. 몽골의 향후 10년을 이끌 '新부흥정책' 발표

■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 및 장기 개발정책 비전 2050 실행을 위한 중기 개발정책 수립

- 팬데믹으로 위축된 몽골 경제 회복 및 국가 발전에 제약이 되는 6가지 요소에 대한 부흥을 통해서 미래 발전의 기반 구축
 - 新부흥정책에서 제시한 몽골 경제발전 제약 요인 6가지는 ①국경검문소 통관 인프라 부족, ②에너지 발전 용량 부족, ③산업 기반 미비, ④도시와 지방의 발전 격차, ⑤녹색 발전 기반 미비, ⑥행정기관의 비효율성 등임
 - 지난 30년간 몽골 내각회의에서 500개가량의 국가발전 사업계획을 승인한 바 있으나, 내각의 잦은 교체로 정책의 연속성이 미흡, 목표 달성에 실패함
 - 따라서 2021.12.30 몽골 국회는 新부흥정책 시행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 향후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의 단절을 방지코자 함

■ 新부흥정책의 일환으로 6개 카테고리, 총 94개 프로젝트 추진 예정

- 전체 94개 프로젝트 중 국경검문소 부흥 사업 43개, 에너지 관련 사업 21개, 산업화 관련 사업 13개, 나머지 17개 프로젝트는 도시와 지방의 부흥, 녹색 부흥, 행정기관 효율성 제고 관련 프로젝트임
 - 총 소요자금은 약 100조~120조 투그릭(약 400억 달러)로 예상되며 중앙정부 자체 자금 조달 가능 프로젝트는 약 20여 개, 나머지 74개 프로젝트는 해외 차관 및 민·관 협력 양허 사업으로 추진 예정
 - 현재 94개 프로젝트 중 38개 사업이 추진 단계에 있으며, 29개 사업은 계약 체결 단계, 나머지 27개 사업은 사업 추진 준비 단계에 있음
 - * 몽골 경제개발부 운영 <https://www.e-invest.mn/project/> 사이트에서 프로젝트 정보 확인 가능

■ 新부흥정책 성공 시 몽골 경제 규모는 약 2배 이상 확대될 전망

- 몽골 경제발전 제약 요소들을 해결함으로써 향후 30년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 경제 규모를 약 2배 가까이 확대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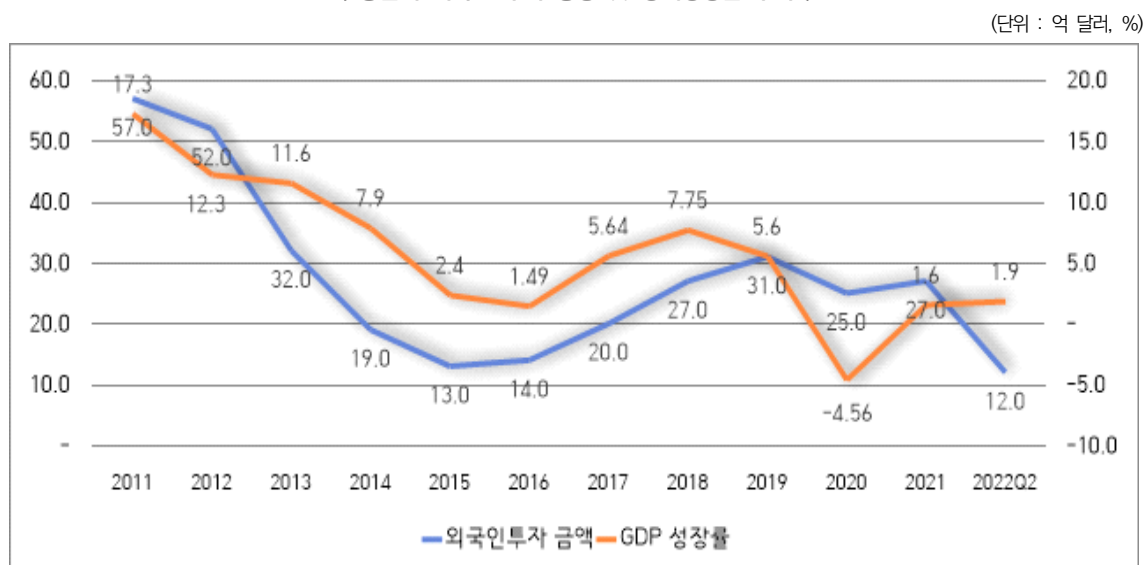
- 국경검문소 부흥, 에너지 공급량 확대 등의 프로젝트 추진으로 2025년까지 약 285,000명에 대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이 가능하게 됨
- 현재 수출 광물의 10% 비중만 내수 또는 자체 가공하고 있으며, 광물 가공업의 부흥을 통해 산업국가로 탈바꿈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임

나.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으로 투자 유치 확대 노력

■ 그간 몽골은 광업 중심의 외국인 직접 투자에 의해 경제 성장을 달성함

- 1990년부터 2021년까지 對몽골 외국인 직접 투자금액이 379억 달러이며, 이 중 72% 비중이 광업에 집중
 - 57억 달러에 달하는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가 유입된 2011년에 몽골 경제는 약 17%의 고성장을 기록하였고, 외국인 투자가 14억 달러를 기록한 2016년도에 경제성장률이 1.4%에 그쳐 침체기를 겪었음
 - 특히 팬데믹 시기 2년간 국경 봉쇄 및 이동 통제 등 각종 제한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감소한 것은 물론 내수경기 침체가 더하여 △4.5%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이와 같은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자 몽골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 관련 법규 환경 개선 추진
 - * GDP의 25%, 정부 예산의 28.9%, 산업 생산의 67%, 전체 수출의 93% 비중 광업으로부터 발생

〈 몽골의 외국인 투자 동향 및 경제성장률 추이 〉



자료 : 몽골 통계청, 몽골 중앙은행

■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과 관련된 ‘투자법’, ‘양허법’ 개정 진행 중

- 상기 27개 법안 모두 2022년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10월 현재 5개 법안이 국회 통과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국회 상정 또는 내각 상정 중임
 - 투자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①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 구체화, ② 정책적 우선순위 산업 분야 확정 및 지원사항 구체화, ③ 투자자의 권익 보장 시스템 구축, ④ 투자계약 체결 및 투자 안정화 증명서를 산업 분야와 산업지역과 연계 발급, ⑤ 투자정책 및 법규, 관련 정부기관의 지속성과 안정성 보장 등임
 - 양허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① 프로젝트 추진 시 민간기업과 정부가 균형적으로 위험 부담, 정부의 지원사항 구체화, ② 양허 사업과 부지, 담보, 사업비 등 문제 조정 구체화, ③ 양허 사업의 산업 분야, 사업 종류, 요구 사항 등 확정, ④ 민간기업이 개발한 혁신기술을 국책사업에 활용, ⑤ 분쟁 해결 및 채무이행에 관한 사항 구체화, ⑥ BT 형태 양허 사업 전면 폐지, ⑦ 양허 사업 유형에 적합한 계약 조건 제시, ⑧ 양허 사업개발연구소 설립 등임

다.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한 경제 활력 모색

■ 2022년 1월, 내각결정 제13호에 따라 기존 14개 부를 16개 부로 확대

- 종합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 4개, 분야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 12개로 조직 개편함
 - 종합 업무 부처: 1) 경제개발부, 2) 외교부, 3) 재무부, 4) 법무부
 - 분야 업무 부처: 1) 자연환경부, 2) 국방부, 3) 건설도시개발부, 4) 교육기술부, 5) 도로교통개발부, 6) 문화부, 7) 광·중공업부, 8) 노동·사회복지부, 9) 식량·농·경공업부, 10) 전자개발통신부, 11) 에너지부, 12) 보건부
 - 상기 16개 부처에 각부가 장관, 부장관, 차관보가 있으며, 부총리 1명, 총리 1명 등으로 내각이 구성
 - * 2020년 7월 9일 결정 정부 조직이 종합 업무 부처 6개와 분야 업무 부처 8개로 구성됨

■ 국가개발정책의 연속성 강화 및 장기적 추진을 위해 경제개발부 신설

- 동굴 경제개발부는 국가의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계획, 추진에 필요한 방법론과 지도를 제공하여 사회·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목적으로 함
- 동굴에서 투자정책 및 투자유치 관련 업무를 관장하게 되는 경제개발부는 전체 10개의 국, 8개의 과, 1개의 실로 구성되며, 총인원은 110명임
 - 국가발전 종합정책기획국 : ① 사회개발정책과, ② 국가발전모델개혁과
 - 거시경제정책국 : ① 재정수지관리과
 - 지역개발·산업정책국
 - 국경통관소개발·경제자유구역개발국,
 - 투자정책국 : ① 민관협력과, ② 프로젝트자금조달과, ③ 투자유치·홍보과
 - 경제무역협력정책국

- 개발협력자금조달국
- 국가개발연구소
- 행정관리국 : ① 법무과, ② 재무과
- 내부감사·평가관리국

* 몽골 경제개발부가 신설됨으로써 기존 외국인 투자 업무를 관장하던 국가개발청 폐지

■ 몽골 정보는 ‘정보기술통신’ 분야를 최우선 발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자개발통신부’를 신설함

● 몽골 전자개발통신부는 선진 통신·정보기술을 도입하고, 지식 기반에 근거한 디지털 국가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몽골 전자개발통신부는 전체 6개의 국, 8개의 과로 구성되며, 총 인원은 87명임

- 정책기획국
- 전자개발정책조정국 : ① 전자정부과, ② 대중미디어인프라과
- 통신정책조정국 : ①우편·지상파 방송과, ②위성통신과
- 사이버안전정책조정국,
- 행정관리국 : ① 법무과, ② 재무투자과, ③ 대외협력과
- 내부감사·평가관리국

* 몽골 전자개발통신부가 신설됨으로써 기존 통신·정보기술청이 폐지됨

라. 몽골의 최대 구리 광산 개발로 경기 부양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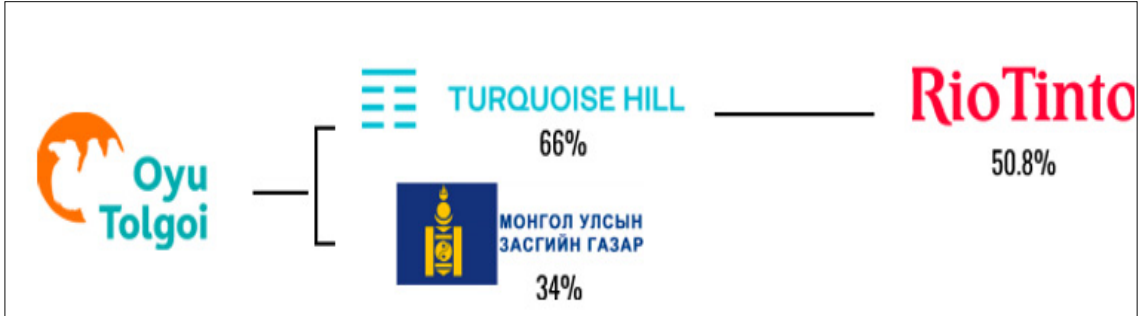
■ 몽골 최대 규모의 구리 광산인 오유틀고이 구리 광산 추가 개발

● 오유틀고이 구리광산*은 몽골 정부(34%)와 리오틀토(66%)사가 공동으로 개발 운영 중으로, 총 매장량은 구리 3,700만 톤, 금 1,250만톤으로, 1차로 노천 광산이 개발

- 2021년 기준 약 163,000톤의 구리정광을 생산하였으며, 몽골 정부에 6억 8,1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함 (2010~2022년 37억 달러)
- 전체 매장량의 80% 이상이 지하광산에 매장되어 있어서 향후 추가 개발 및 생산에 따른 몽골 경제성장에 높은 기대감 형성
- 오유틀고이 광산의 광업권은 ‘Oyu Tolgoi LLC’가 소유하고 있으며, 동사의 주주 구조는 몽골 정부가 34%, 글로벌 광산기업 Rio Tinto의 자회사 Turquoise Hill사가 66%를 소유하고 있음

* 2001 캐나다 Ivanhoe사에 의해 발견, 2009.10 투자협정 체결 후 Oyu Tolgoi LLC 설립하였으며, 2011년 8월 개발 착수, 2012년 4월 채굴 시작, 2015년 지하광산 개발 건설공사 개시

〈 오유틀고이사 지분 구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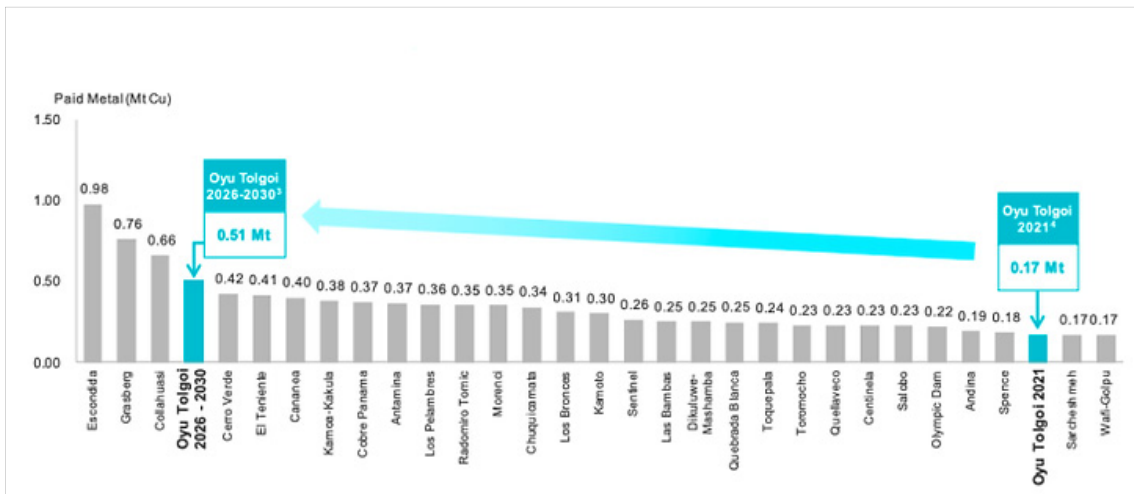


자료 : www.ot.mn

■ 2015년 지하광산 개발 공사 개시 이후 2022년 1월 건설공사 완료로 첫 발파에 착수

- 202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채굴에 착수할 것이며 2028년부터 최대 규모 생산에 착수하여 연간 약 570,000톤의 구리정광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
 - 이 경우 연간 매출액이 약 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은 현재 기준 몽골 경제(GDP 13억 달러)의 약 40% 비중 차지함
 - 또한 몽골 정부에 지불하는 연간 로열티, 부가세 등 세금 또한 약 3배 증가
 - 2021년 기준 오유틀고이 광산은 구리 생산량 기준 세계 27위 수준이나 2028년부터 세계 4위 구리 생산량 광산으로 성장

〈 2028년 기준 세계 주요 구리 광산의 생산량 순위 〉



자료 : Wood Mackenzi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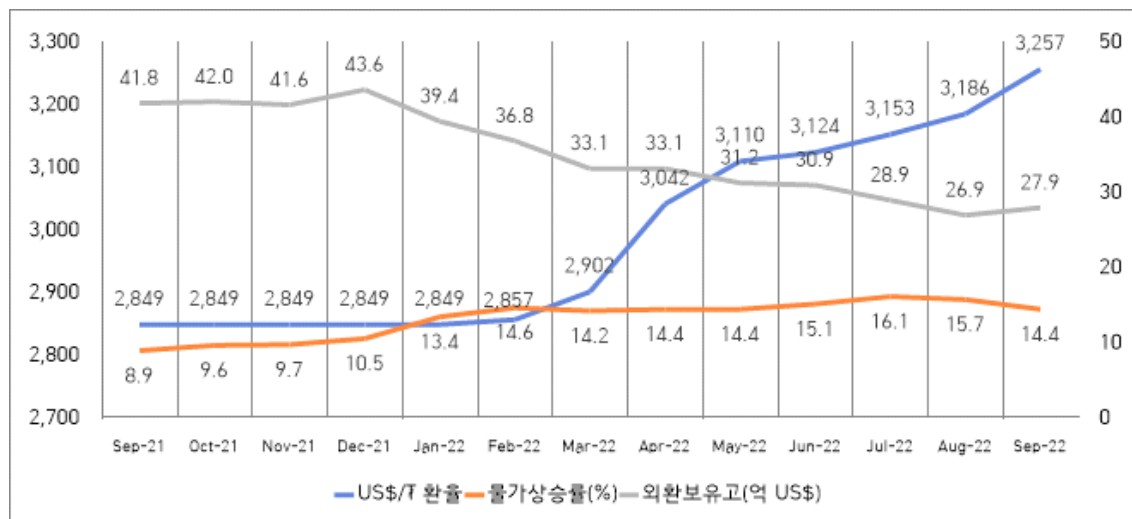
마. 내륙 국가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적극적 외교 노력

■ 이웃국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러-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경제 악영향

● 對중국 광물 수출 감소,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등으로 경제에 부담 가중

- 최근 1년간 물가상승률 14.4%, 미화 대비 투그릭화 환율 15% 상승하였으며 몽골 중앙은행 외환 보유고가 약 33% 감소
- * 외환 보유고 감소 및 달러화 환율 증가에 따라 현지 상업은행들이 1일 달러화 매입에 한도 책정 중
- ** 22.4.1일 달러 송금 최대 한도 5백만 투그릭(약 1,545\$)으로 제한→ 9.14일 1백만 투그릭(약 310\$)으로 제한→ 9.30 30만 투그릭(약 90\$)으로 각각 제한해옴
-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올 상반기 내내 몽골-중국 국경의 반복적인 봉쇄-해제가 몽골의 광물 수출입 물류 운송에 타격을 가함
- 또한 석유제품의 90%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어 러-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석유제품 가격 상승이 급격한 물가 상승을 초래함

〈 최근 1년간 환율, 물가상승률, 외환 보유고 변동 추이 〉



자료: 몽골 은행

■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이웃국과의 협상 강화 및 제3국가들과 경제교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펼치고 있음

- 최근 6개월간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미국, 캐나다 등 주요 경제협력 국가들의 고위급 인사가 몽골을 각각 국빈 방문
 - 8.28일 몽골에 국빈 방문한 박진 외교부 장관의 몽골 방문은 8년 만에 이루어졌고, 경제 및 안보 협력 방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논의
 - 9.7일 제7차 동방경제포럼에 몽골 총리가 푸틴 대통령과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2027년까지 휘발유는 830달러, 경유는 10% 할인 가격으로 수입키로 합의
 - 9.11일 중국 리잔수 국회의장이 몽골 잔단샤타르 국회의장과의 회담에서 2022~25년까지 석탄 수출량을 4천만~7천만 톤까지 확대할 것으로 합의
 - 2022년도 주요 국제기구 및 주요 협력국 고위급 인사 몽골 방문 내역
 - 4.30 - 일본 외무상
 - 7.05 - 러시아 외무장관
 - 8.09 - UN 사무총장
 - 8.26 - 미국 국무부 차관보 (동아시아태평양담당)
 - 8.28 - 한국 외교부 장관
 - 9.06 - 인도 국방부 장관
 - 9.11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2023

몽골 진출전략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 몽골 경제는 광업이 GDP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등 광업 의존형 산업구조를 갖고 있으며 도소매, 유통업 등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음
- ※ 몽골 후렐수흐 대통령의 '10억 그루 나무 심기 캠페인' 제언 등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개발 등의 국제적 분위기에도 적극 동참 노력 중

가. 정치 환경

■ 몽골 정치체제 개관

- 몽골의 정치체제는 민주공화제, 정부 형태는 의원내각제적인 성격이 강한 의원집정부제 성격을 띠고 있음
 - 입법권은 76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가 최고회의(Great Khural)로부터 나오며, 헌법상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이자 입법권을 가진 유일한 기관인 국회의 임기는 4년임
 -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元首)인 동시에 국가안보회의의장(대통령, 총리, 국회의장으로 구성) 겸 군 최고통수권자로, 외교·국방사법권을 보유하며, 전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선제로 선출함
 - 총리는 내정을 총괄하는 행정 수반으로서 의회 다수당의 당수가 총리직을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행정부를 이끌고 국회 법안의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짐
 - 형식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 3권이 분리되어 있으나, 국가 주요기관이 긴밀히 연결되어 주요 기능이 3부에 혼재되어 있음

〈 몽골 주요 인사 〉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후렐수흐 오흐나 Khurelsukh Ukhnaa	어윤에르덴 룽산남스라이 Oyun-Erdene Luvsannamsrai	잔당샤트르 검버자브 Zandanshatar Gombojav
		
2021~2027년	2021~2024년	2020~20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3년생 • 몽골국립대 법학과 졸업 • 2000~2008년 몽골 국회의원 • 2006년 국가전문감독청장 • 2012년 몽골 국회의원 • 2014년, 2016년 몽골 부총리 • 2017년~현재 몽골 국무총리 • 2021년 6월~현재 몽골 대통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3년생 • 2008년 몽골국립대(법학) 및 교대(교육학) 졸업 • 2015년 美 하버드대 정치과 석사 졸업 • 2011~2012년 인민당 서기장 • 2016년~현재 몽골 국회의원 • 2021년~현재 국무총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Irkutsk시 국립산업대 경제과 졸업 • 2003년 몽골 식량·농업부 차관 • 2004~2012년, 2016년~현재 몽골 국회의원 • 2016~2018년 몽골 내각관방부 장관 • 2018년~현재 몽골 국회의장

자료 : www.vip76.mn

■ 최근 동향 및 주요 이슈

● 헌법 개정으로 장관-국회의원 겸직 확대

- 2019년 11월 14일 몽골 헌법 제39조 1항에 “총리 및 정부 조직원 4명까지 국회의원직을 겸직할 수 있다”라고 제정했으나 2022년 8월 25일 헌법 개정으로 동 조항을 취소하여 장관-국회의원 겸직이 확대됨

● 14개 부처에서 16개 부처로 정부 조직도 확대

- 몽골 헌법 제39조 3항에 “몽골 총리는 정부의 조직, 구조 및 그 개편에 대한 법률안을 대통령과 7일 이내에 협의하지 못한 경우 국회에 직접 상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국회는 2022년 8월 29일에 몽골 정부 조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정부를 구성
- 이에 따라 '22년에는 종합 업무를 담당하는 4개의 부처(경제개발부, 외교부, 재무부, 법무부)와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12부 등 총 16부로 구성
- 상기 16개 부처에 장관, 부장관, 차관보가 있으며, 부총리 1명, 총리 1명 등으로 내각이 구성

나. 경제 환경

■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 러-우 사태 영향 등으로 경제 회복 제동

- 내륙 국가 특성상 이웃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국경 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몽골 경제 반등에 제동이 걸리고 있음
 - 특히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올 상반기 내내 몽골-중국 국경의 봉쇄-해제가 반복되어 몽골 수출입 물류 운송에 애로를 겪은 바 있음
 - * 해상운송의 경우 한국-몽골 운송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
 - 또한 몽골은 석유제품 수입의 9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어 러-우 사태로 인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물가상승률이 16.1%까지 기록

■ 2022년 경제성장률은 2% 마감, 23년에는 5%까지 성장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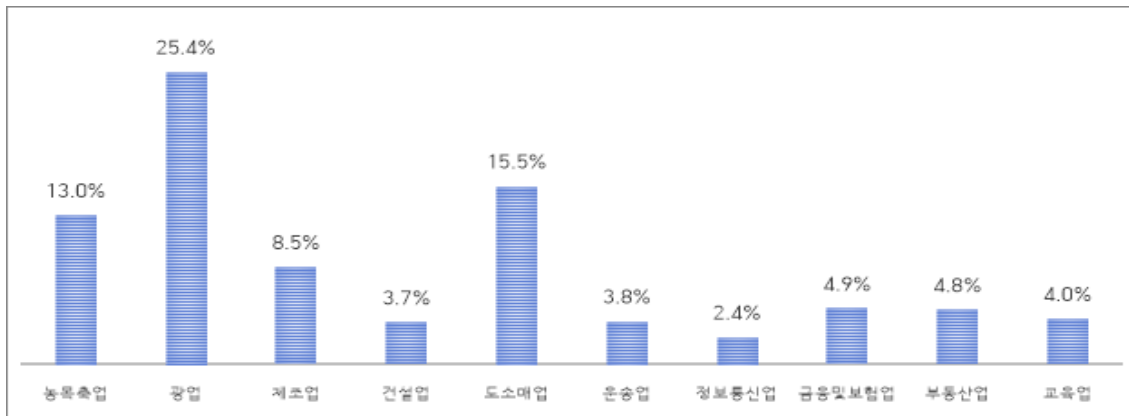
- 2022년 경제성장률은 2%대로 예상되며 2023년에는 세계은행 및 국제기구들의 예상치는 5%대로 전망
 - 몽골 경제는 2011년 17%의 고성장 기록 후 하락세를 유지하다 2017년 5.6%, 2018년 7.7%, 2019년 5.6% 각각 기록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년에는 -4.6%의 성장을 보이는 등 팬데믹으로 인한 타격이 큼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22년 상반기 경제성장률 1.9%, 물가상승률 14.4%, 외환보유액 38.6% 감소 등 거시경제 지표가 악화된 상황
 - 그러나 강력한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및 제3의 이웃국 정책, 對중국 석탄 수출 확대 등으로 2023년 경제성장률은 5%대로 전망
 - * 2023년 몽골 경제성장률 예상치 : 5.9%(몽골은행), 5.8%(WB), 5.6%(ADB), 6.0%(IMF)

다. 산업 환경

■ 산업 개요

- 몽골은 전통적인 목축업 국가에서 광업 중심으로 경제개발 추진
 - 2000년까지 몽골의 GDP 중 농목축업 비중이 27% 수준이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 기준 13%의 비중을 차지
 - 반면 광업은 2000년대 비중이 10% 수준이었으나 2010년 22%, 2021년 25%까지 증가하는 등 광업 의존형 경제구조로 변화
 - 농목축업과 광업 다음으로 도소매업 비중이 높으며, 도소매업의 2000년대 비중은 15%이었으나 현재 2021년에도 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21년 기준 GDP 중 주요 산업 분야별 점유 비중 〉



자료 : 몽골 통계청

■ 광업

- 광업 부문은 GDP의 25%, 산업 생산의 57%, 전체 수출의 84% 차지
 - 2021년 기준 몽골 GDP는 43조 투그릭으로, 전년 대비 성장률은 1.6%로 나타났으며, 광업의 경우 GDP의 24.7%, 산업생산의 56.7%, 총수출의 81.3%를 차지하는 등 몽골 경제성장의 원동력

〈 최근 5년간 광산업 동향 〉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2.6월
광업 총생산량 (조 투그릭)	8.3	9.6	8.7	10.7	5.5
GDP 중 광업 비중 (%)	25.7	25.3	23.3	24.7	24.0
산업생산 중 비중 (%)	62.1	60.1	55.7	56.7	65.0
전체 광물 수출액 (전체 수출 중 비중)	6,070.3 (86.6%)	6,626.2 (83.7%)	5,256.0 (69.4%)	7,515.9 (81.3%)	4,437.1 (8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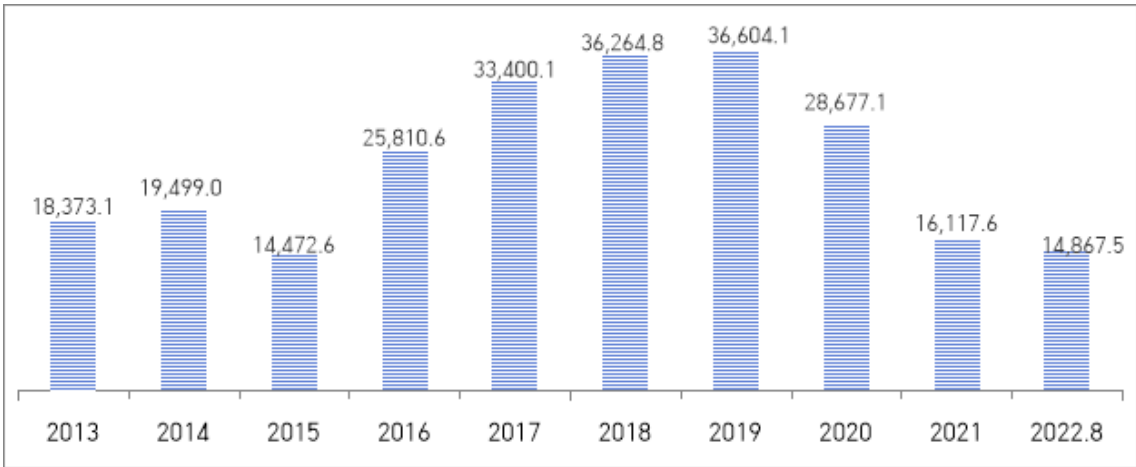
자료 : 몽골 통계청 및 관세청

- 석탄, 구리, 철광석, 금 등 4대 광물 개발량 및 수출량에 의해 몽골 경제가 크게 좌우되는 상황
 - 2021년 기준 몽골의 전체 수출액은 약 92.5억 달러이며, 이 중 81.3%에 해당하는 75억 달러가 광물 수출
 - 코로나19 이전까지 석탄은 생산 및 수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광물로 2021년에는 생산량이 전년 대비 29.7% 감소한 3,012만 톤으로 확인

- 구리 생산량은 132만 톤(3.9% ↑), 금은 19톤(5.8% ↓), 철광석 생산량은 12만 톤으로 전년 대비 0.6%로 감소
- 코로나 영향으로 對중국 수출량이 크게 감소되었으나 지난 9.11 양국 국회의장 간 합의를 통해 '25년까지 석탄 수출량을 7,000만 톤까지로 확대기로 하는 등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음

〈 최근 10년간 석탄 수출량 〉

(단위 : 천 톤)



자료 : 몽골 통계청

■ 도소매업

- 몽골 GDP 중 제조업의 비중이 8.5% 수준으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공산품의 대다수를 수입에 의존
 - 2021년 기준 몽골 GDP 중 도소매·유통업 비중은 15.5% 수준이며 '22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17.4%로 파악
 - 제조업 기반 취약으로 생활소비재의 80% 이상을 수입하는 몽골의 유통산업은 최근 2년간 연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에는 5.8% 성장률 기록
 - 몽골에 전체 96,336개 사업체가 정상 영업 중이며, 이 중에서 36,950개 사업체가 유통산업에 종사하면서 15만여 명에게 일자리 제공

〈 최근 도소매업 동향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2.6월
유통업 총생산량 (조 투그릭)	3.1	3.6	3.4	4.06	1.9
GDP 중 유통업 비중 (%)	16.4	16.5	14.7	15.5	17.4
실질성장률	0.1	10.9	-12.5	5.8	n/a

자료: 몽골 통계청 및 관세청

- 외국계 유통 브랜드의 몽골 진출에 따라 유통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추세
 - 최근 외국계 유통 프랜차이즈(이마트, Absolute, CU, GS25)의 몽골 진출로 유통산업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음
 - 한국계 프랜차이즈의 급격한 점포 수 확대 등으로 한국의 對몽골 도소매업 투자액은 9,345만 달러로 광업 다음으로 활발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음
 - * 2018년 진출 CU 점포 수 264개, 2021년 진출 GS25 점포 수 100개 ('22.9.30일 기준)
 - 2021년 기준 유통업계 총매출액이 29조 투그릭(약 102.2억 달러)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하였으나, 고용자 수는 대폭 감소 (유통 점포 시스템의 현대화, 전산화에 따라 고용자 수 감축한 결과로 파악)

〈최근 5년 유통업 매출 및 생산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유통업계 고용자 수 (명)	204,474	211,187	160,405	166,590	149,168
유통업 매출액 (십억 투그릭)	20,000	24,134	27,077	25,480	29,107
- 도매업	10,194	11,926	13,595	8,546	n/a
- 소매업	9,806	12,208	13,482	16,934	n/a

자료 : 몽골 통계청

■ 농축산업

- 몽골은 지구상에서 몇 안 되는 전통 유목문화 보유국으로 2000년에는 농목축업이 GDP의 27% 수준이었으나 21년 기준 13%로 감소
 - 몽골의 농축산업은 주로 내수 충족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농업보다는 축산업의 비중이 큰 구조 (농업: 14%, 축산업: 86%)
- 농업의 경우 2019년까지 4차에 걸친 농업운동을 시행하여 농지 훼손 방지 및 복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 개발, 식량안보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
 - 이를 통해 국내 수요의 대부분 자급자족하고 있음

〈 최근 4개년 농작물 생산 및 수입 현황 〉

(단위 : 천 톤)

구분	2018		2019		2020		2021	
	생산량	수입량	생산량	수입량	생산량	수입량	생산량	수입량
밀	429.2	232.0	402.4	14.4	430.3	129.8	614.5	226
감자	168.4	2.9	192.1	0.4	244.3	8.9	182.6	100
채소	99.8	85.9	98.8	83.4	121.2	55.2	121.7	50.1

자료 : 몽골 통계청, 몽골 관세청

- 20년까지 성장세를 기록했으나 21년 들어 4년 만에 5.5% 역성장 기록
 - 2020년 기준 코로나19 영향이 가장 낮았던 부문인 농업은 플러스 5.8%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2021년에는 마이너스 5.5%를 기록함
 - 농업 생산량은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실질성장률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 최근 5년간 농업 동향 〉

(단위 : 십억 투그릭, %)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농업 생산량	3,119.6	3,723.5	4,373.6	4,856.0	5,733.3
실질성장률	-0.3	6.5	5.6	5.8	-5.5
GDP 중 비중	11.1	11.4	11.5	13.0	13.1
전체 GDP	28,010.7	32,582.6	37,839.2	37,453.2	43,555.5

자료 : 몽골 통계청

- 몽골의 축산업은 유목축업에 기반하고 있으며 5축(말, 소, 낙타, 양, 염소) 이 약 7,100만 마리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전체 노동인구의 약 25% 정도가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캐시미어 생산 목적의 염소 두수가 급증하여 목초지 부족 및 훼손 문제가 심각함
-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등으로 축산물 수출 규모가 축소되었으나, 캐시미어 수출은 2021년에는 전년 대비 대폭 증가
 - 코로나19 국경봉쇄 조치에 따라 축산물 수출은 '20년 42.3%, '21년 56.6% 각각 감소했으나, 캐시미어 수출액은 '20년에는 32.4% 감소했고 '21년에는 32.2% 증가함

〈 최근 5년간 주요 축산물 수출 동향 〉

(단위 : 천 달러)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육류 수출액	46,173.2	68,288.6	57,688.6	33,283.4	14,443.5
캐시미어 수출액	244,161.6	306,900.4	328,609	221,965.5	293,569.4
가죽 수출액	12,345.1	8,095.5	6,878.1	5,394.7	3,763.6
전체	302,679.9	383,284.5	393,175.7	260,643.6	311,77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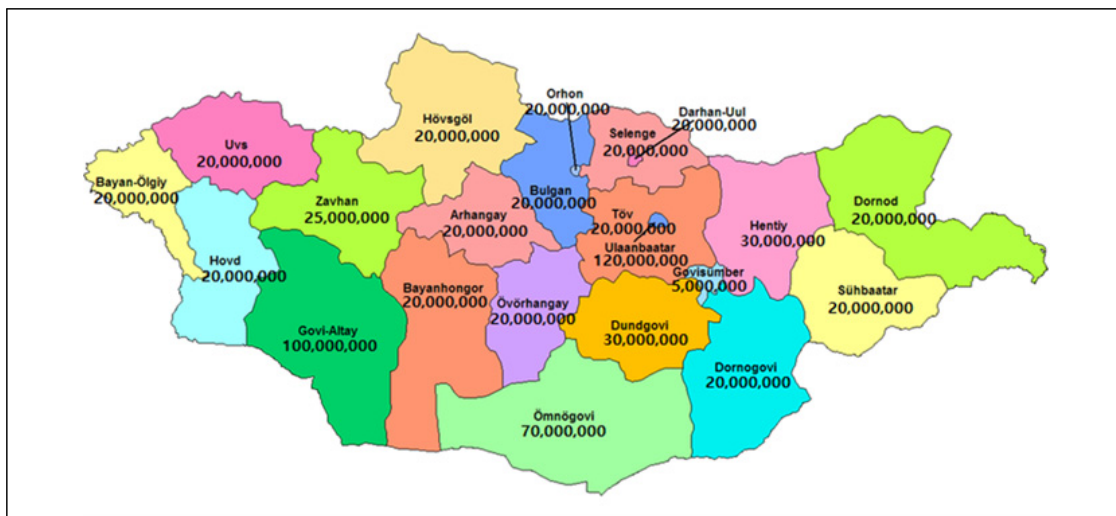
자료 : 몽골 통계청

라. 정책·규제 환경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몽골 정부 ‘10억 그루 나무 심기’ 캠페인 추진

- 몽골은 지난 80년간 평균 기온이 2.25℃ 상승하는 등 지구온난화 및 이로 인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지역 중 하나
 - 몽골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평균치보다 2.7% 높은 상황으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BAU 대비 22.7% 비중으로 감축키로 함
- 몽골 대통령, 제 76차 유엔총회에서 10억 그루 나무 심기 캠페인 제안
 - '21.9월 제76차 유엔총회에서 몽골 대통령은 '사막화를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조림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자 2030년까지 전체 10억 그루 나무 심기 캠페인을 발표
 - 후렐수흐 대통령은 본 캠페인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전 국민, 기업체,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고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단계별 세부 계획 수립 및 추진 중

〈 몽골 수도 및 21개 아이막 캠페인 동참 현황 〉



자료: www.president.mn

- 세계적인 트렌드로 향후 기업들의 ESG 경영 개념에서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
 - '10억 그루 나무 심기' 캠페인은 공공기관이 주도하고 있으나 몽골의 주요 대기업들이 적극 참여를 발표
 - 2030년까지 조림사업 관련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향후 2~3년간 묘목 수요 및 임업용 기계 및 장비, 관개 시스템 등의 수요 확대가 예상되며 이들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어 유망 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

2

시장 분석

- ※ 몽골은 내륙 국가로서 러시아, 중국 등 이웃국가 의존도가 높고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등 대외변수에 민감한 시장
- ※ 한국과 몽골은 공급망 안정화 및 다변화 차원에서 향후보다 큰 협력이 기대되며 특히 희소금속 협력센터 추진 등 자원 공동개발 등에 있어 협력을 통해 시너지 예상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인구 3백만의 작은 시장이나 한류 영향으로 중소기업 유망 틈새시장 부상

- 한류 영향으로 한-몽 간 상품·서비스·인적교류 활발. 한국은 몽골의 4위 교역국
 - 한국 프랜차이즈의 성공적인 진출(이마트, 탐앤탐스, 카페베네, 뚜레쥬르, CU, GS25 등)
 - 한국 병원 및 의료 서비스, 한국형 아파트 건설 분양, 한국 식료품, 화장품, 의류 등의 광범위한 유통

■ 내륙 국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3국과의 교역 확대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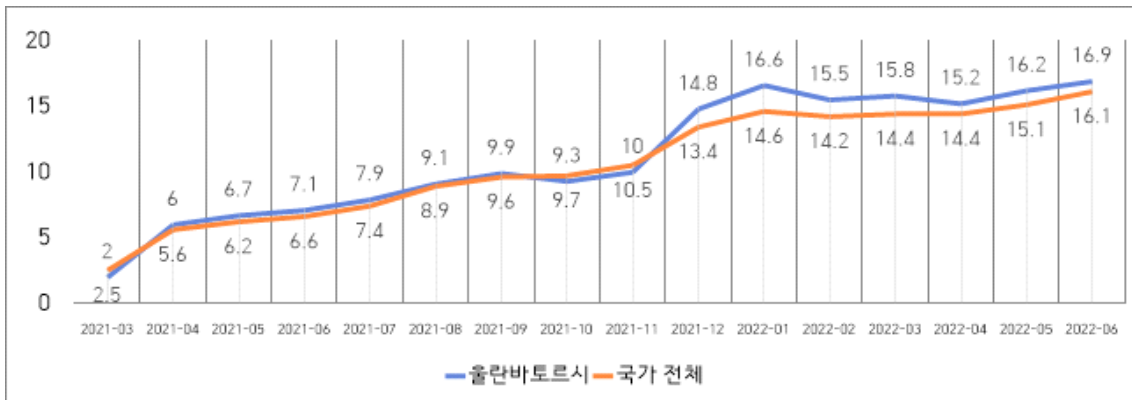
- 전략적 파트너인 중국(최대 수출시장)과 러시아(에너지 공급원) 의존적 국제관계에서 탈피, 소위 '제3의 이웃'(미국, 일본, 한국, 인도 등)과의 교역 확대 추진
 - '22년 들어서 외교활동이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웃국 외에 다른 국가 고위급 인사 방문이 잦아지고 있음
 - 2015년 2월 몽골은 최초로 일본과 FTA를 체결했으며, 2016년 6월 6일부로 발효
 - 미국, 캐나다, 한국, 중국 등 국가와 FTA 체결 희망, '16년 7월 한국과 EPA 체결 추진 합의
 - 2020년 10월 APTA의 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21년 1월 1일부로 발효

■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에 인접, 대외변수에 민감한 경제구조

- 에너지·석유제품 등 품목에 있어서 러시아에 의존도가 높음
 - 2021년 기준 전체 석유제품 수입액의 89% 비중인 10억 달러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휘발유 1리터당 7%, 경유는 25% 각각 가격 상승
 - * 휘발유 가격: 2,250→2,390투그릭, 경유 가격: 2,860→ 3,580투그릭 (9.27일 기준)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몽골에서 석유제품 가격상승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14년 만에 고인플레이션(16.1%) 기록
 - * 인플레이션: '18년(6.8%), '19년(7.3%), '20년(3.7%), '21년(7.1%)

〈'21.3월~'22.6월 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 전년 동월 대비)



자료 : 중앙은행

● 달러화 환율 급상승으로 매입 한도 책정

- 22.2월 초까지 미국 달러/투그릭 환율이 2,850투그릭을 유지했으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긴장 고조로 2월 중순부터 달러화 환율이 급상승하기 시작
 - * 22.2월 평균 환율 대비 현재(9.27일) 미 달러 환율은 15.5% 상승
- 현지 시중은행에서 달러 매입 한도를 책정하고 있어 현지 업체들이 대금결제 지연 또는 대금결제를 달러화가 아닌 원화, 위안화, 엔화 등 외화로 대체 지불 대안도 고려

● 내륙 국가인 관계로 이웃국 국경 봉쇄에 따른 물류난 발생

- 몽골은 러시아-중국과 국경을 접하는 내륙국인 관계로 모든 물류 과정은 중국(70%)과 러시아(30%)를 통해 이뤄지고 있음
- 22년 11월부터 중국은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최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양국의 주요 무역항인 자민우드-얼렌(Zamiin Uud-Erlian) 국경 세관의 봉쇄 및 해제가 반복됨에 따라 몽골 전체 수출입에 소요되는 기간 지연

나. 수출

■ 몽골 대외무역 동향

● 몽골 대외무역은 2021년 160억 달러로 최고치 기록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몽골 대외무역은 2020년 6.3%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16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5% 확대되어 역대 최고치 기록

- '22년 상반기 기준 전체 무역액은 92억 달러로 25.6%, 수출 및 수입은 각각 20% 이상의 증가세 기록

〈 최근 5년간 몽골 수출입 동향 〉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월
대외교역	10,536	12,886.7	13,747.2	12,875.2	16,095.7	9,256.4
수출	6,200.6	7,011.7	7,619.8	7,576.3	9,247.1	5,308.3
수입	4,335.4	5,875	6,127.4	5,298.9	6,848.6	3,948.1
무역수지	1,865.2	1,136.7	1,492.3	2,277.4	2,398.5	1,360.2

자료 : 몽골 관세청

- 중국은 몽골의 최대 교역 대상 국가로, 수출의 82%, 수입의 34%를 차지
 - '22년 상반기 기준 몽골의 對중국 수출액 43억 달러, 수입액은 13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18.1%, 수입은 5.6% 각각 증가
 - 최대 수출국 중국 다음으로 스위스, 싱가포르 순이며, 한국은 4위 수출 대상국
 - 수입국은 중국이 1위이며, 러시아, 일본, 한국 순

〈 몽골 2022년 1~6월 기준 주요 교역국 현황 〉

(단위 : 백만 달러, %)

수출 대상 상위 10개국				수입 대상 상위 10개국			
순위	국가명	금액	비중	순위	국가명	금액	비중
1	중국	4,374.8	82.4	1	중국	1,371.7	34.7
2	스위스	488.9	9.2	2	러시아	1,212.8	30.7
3	싱가포르	240.7	4.5	3	일본	335.6	8.5
4	한국	75.9	1.4	4	한국	193.0	4.9
5	러시아	35.4	0.7	5	미국	90.6	2.3
6	이태리	38.3	0.7	6	독일	83.0	2.1
7	독일	16.8	0.3	7	터키	55.5	1.4
8	홍콩	6.5	0.1	8	인도	46.7	1.2
9	일본	6.4	0.1	9	폴란드	44.2	1.1
10	영국	4.0	0.07	10	프랑스	41.0	1.0
전체		5,308.3	100	전체		3,948.1	100

자료 : 몽골 관세청

■ 수출입 동향

● 몽골 수출 동향

- 주요 수출품은 석탄, 구리, 금 등 광물이며, '22년 상반기 기준 수출액 중 광물성 제품이 약 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또한 광물 중에 석탄 수출액이 약 53%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구리정광(35.8%), 금(11.6%), 철광석(3.9%) 수출이 대다수
- 원자재 중심의 수출구조로, 국제 시세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불안정한 국가수익으로 연결

〈 주요 수출 광물 동향 〉

(단위 : 백만 달러)

광물명	단위	수량		수출액		증감률
		2021.6월	2022.6월	2021.6월	2022.6월	
구리정광	천 톤	614.9	747.8	1,312.9	1,590.7	21.1%
석탄	백만 톤	9.6	8.1	1,028.3	2,350.0	128.5%
금	톤	3.7	5.6	218.0	514.1	135.8%
철광석	천 톤	4,028.6	1,749.9	550.8	173.9	-68.4%
원유	천 발	2,858.5	114.1	168.4	12.3	-92.7%

자료: 몽골 통계청

● 몽골 수입 동향

- 주요 수입품은 석유제품, 자동차, 기계류, 에너지 외에 조제식료품 등 공산품 중심으로 수입
- 몽골은 광업 중심의 국가이나 광물을 원자재 형태로 수출하고 1, 2차 가공 후 또는 최종품을 수입하여 사용

〈 주요 수입 품목 동향 〉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20.6월	2021.6월	2022.6월	증감률
석유제품	485.4	551.9	877.5	59.0%
자동차	374.1	708.7	621.6	-12.3%
기계류	526.4	576.6	604.6	4.8%
철강 제품	235.6	247.1	424.8	71.9%
조제식료품	197.7	278.9	366.3	31.3%
화학제품	173.0	270.5	274.7	1.5%
플라스틱제품	100.7	116.9	162.5	39.0%
전체 수입액	2,460.1	3,261.1	3,948.1	21.0%

자료 : 몽골 통계청

- 몽골은 세계 10위 자원 부국으로 형석, 희토류 등 매장량이 풍부, 글로벌 공급망에서 향후 중요한 잠재력 보유
 - 몽골 보유 광물은 80여 종이며, 구리(2위), 석탄(4위), 형석(3위), 희토류(세계 매장량 16%), 형석, 금, 철, 납, 몰리브덴, 은, 텅스텐, 우라늄, 아연 등 풍부
 - 생산 규모가 GDP의 5%를 넘고, 국가안보 및 경제·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15개 광산을 전략광산으로 지정하여 관리
 - 몽골 전략광산에는 구리, 금, 석탄을 비롯하여 철, 우라늄, 몰리브덴, 인, 아연 등 주요 광물이 고루 포함되어 있음

〈 몽골 전략광산 현황 〉

광산명	위차(아이막)	광종	현황	가채광량
Tavan Tolgoi	Umnu-govi	석탄(C)	개발/생산 ('66)	7,400백만 톤
Oyu Tolgoi	Umnu-govi	동(Cu), 금(Au)	개발/생산 ('13)	Cu 4.6백만 톤 Au 335톤
Baganuur	Tuv	석탄(C)	생산 ('78)	600백만 톤
Shivee Ovoo	Dund-govi	석탄(C)	생산 ('92)	600백만 톤
Nariin Sukhait	Umnu-govi	석탄(C)	생산 ('03)	390백만 톤
Tumurtei	Selenge	철(Fe)	생산 ('07)	121백만 톤
Burenkhaan	Khuvsgul	인(P)	개발	40백만 톤
Tumurtein Ovoo	Sukhbaatar	아연(Zn)	생산 ('05)	1백만 톤
Tsagaan Suvarga	Dorno-govi	동(Cu), 몰리(Mo)	개발 ('15)	Cu 3백만 톤 Mo 43천 톤
Erdenet	Orkhon	동(Cu), 몰리(Mo)	생산 ('78)	Cu 4백만 톤 Mo 100천 톤
Dornod	Dornod	우라늄(U)	F/S	24천 톤
Gurvabulag	Dornod	우라늄(U)	F/S	8천 톤
Mardai	Dornod	우라늄(U)	탐사	1천 톤
Asgat	Bayan-ulgii	은(Ag)	F/S	2천 톤
Boroo	Tuv	금(Au)	생산 ('04)	39톤

자료 : 몽골 투자 실무 가이드 (KORES)

〈 최근 3년간 광물 생산 동향 〉

구분	단위	2020년	2021년	'22.7월
석탄	천 톤	42,863.6	30,124.3	12,995.5
동정광	천 톤	1,276.7	1,326.3	654.5
철광석	천 톤	13,940.8	12,848.7	6,227.2
석유	천 배럴	4,105.9	4,667.1	422.2
형석 정광, 광석	천 톤	212.3	178.6	56.2
아연 정광, 광석	천 톤	76.3	75.2	73.0
몰리브덴 정광, 광석	톤	6,147.7	6,326	3,088.4
금(kg)	kg	20,225.5	19,054.4	9,592.7

자료 : 몽골 광업중공업부

- 광물 수출의 경우 석탄, 구리, 금, 철광석 등 몽골의 4대 광물은 수출금액 기준 약 90% 비중을 차지하며, '22.8월 기준 석탄은 최대 광물로서 53.5%를 차지

〈 최근 3년간 광물 수출 동향 〉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20년		2021년		'22.8월	
	수출량	금액	수출량	금액	수출량	금액
석탄 (천 톤)	28,677.1	2,126.6	15,708.1	2,763.9	14,858.9	3,883.2
동정광 (천 톤)	1,395.1	1,778.0	1,282.5	2,899.8	976.8	1,993.4
철광석 (천 톤)	8,202.3	639.6	7,106.2	952.2	2,659.5	255.8
석유 (천 배럴)	4,070.5	150.8	4,348.9	273.3	948.6	103.4
형석 정광, 광석 (천 톤)	678.9	156.3	644.7	144.1	204.0	58.7
아연 정광, 광석 (천 톤)	134.1	167.6	112.6	176.4	97.1	201.6
몰리브덴 정광, 광석 (천 톤)	6.4	40.7	7.3	82.4	3,882.7	54.0
금 (kg)	30,500	1,787.6	17,249	1,004.5	9,950	591.4
전체 광물성 제품 수출액		7,043.3		8,520.4		7,261.4

주 : HS코드 분류로 인해 금은 전체 광물 수출액에 미포함

자료 : 몽골 통계청, 광업중공업부

다. 투자

■ 투자 동향

■ 외국인 직접 투자(FDI) 동향

- 2011년에 44억 달러로 최대 규모를 기록한 몽골 FDI는 이후 2016년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고 2017년부터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등 대외요인으로 인해 2020년에는 17.2억 달러로 전년 대비 29.6% 감소
- 2021년에는 24%로 증가한 21.4억 달러를 기록했고 '22.7월 기준 약 1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한 것으로 확인
- 몽골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이익 보호 등 법적 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법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각종 국제기관 및 투자자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따라 향후 FDI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

〈 최근 10년간 FDI 유입 현황 〉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2.7월
유입액	2,059	337.8	94.3	-4,156	1,494	2,173	2,443	1,719	2,139	1,097
증감률	-51.8	-83.6	-72.1	-	-	45.5	12.4	-29.6	24.4	-0.7

자료 : UNCTAD, 몽골 중앙은행

- 주요 투자국으로 캐나다(39.3%), 중국(20.4%), 싱가포르(7.2%), 룩셈부르크(5.9%), 홍콩(4.3%) 등 상위 5개국이 전체 투자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현지 대형 광산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가 유입 중
- 한국은 제11위 국가로 전체 투자액 중 1.7% 즉 4억 2천만 달러로, 광산업, 도소매업, 건설업 진출 활발

〈 주요 국별 누적액 기준 직접 투자 현황 〉

(단위 : 백만 달러)

No.	국가	2020년	2021년	'22.6월	비중 ('21년 기준)
1	캐나다	9,140.7	10,337.8	11,001.8	39.3%
2	중국	5,237.7	5,367.5	5,193.4	20.4%
3	싱가포르	1,526.9	1,879.3	2,033.8	7.2%
4	룩셈부르크	1,506.8	1,557.1	1,202.0	5.9%
5	홍콩	1,081.7	1,134.2	1,545.2	4.3%
6	일본	981.8	1,032.9	1,150.1	3.9%
7	호주	826.3	820.7	654.9	3.1%
8	미국	651.3	672.3	678.8	2.6%
9	영국	484.4	642.5	683.1	2.4%
10	네덜란드	573.1	564.9	675.6	2.2%
11	한국	461.1	459.8	425.5	1.7%
	기타	1,734.9	1,812.8	1,891.5	6.9%
	합계	24,206.7	26,281.8	27,135.7	100%

자료 : 몽골 통계청

- FDI의 70% 이상이 광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 도소매업, 은행금융업, 건설업 등 순

〈 몽골 산업별 직접 투자 (누계) 현황 〉

(단위 : 백만 달러)

No.	구분	2020년	2021년	'22.6월	비중 ('21년 기준)
1	광업	17,703.3	19,099.1	19,857.9	72.7
2	도소매업	1,841.8	2,085.0	1,905.9	7.9
3	금융 및 보험업	955.4	1,142.0	1,200.6	4.3
4	서비스업/기타/	993.9	1,027.8	1,030.20	3.9
5	건설업	873.9	881.0	888.7	3.4
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237.4	359.3	494.1	1.4
7	제조업	319.7	341.5	337.7	1.3
8	전문·과학 및 기술업	272.9	318.4	354.3	1.2
9	부동산업	202.7	225.8	224.0	0.9
10	숙박업 및 외식업	264.0	214.4	149.0	0.8
11	운수 및 창고업	183.1	209.9	208.3	0.8
12	정보통신업	152.4	157.4	154.9	0.6
13	농업·임업·어업	76.9	80.3	80.5	0.3
	기타	129.3	139.9	249.6	0.5
	전체	24,206.7	26,281.80	27,135.70	100.0

자료 : 몽골 중앙은행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협력 의제

가. 교역

■ 한국과의 무역 동향

- 2022년 기준 한국은 몽골의 4위 수출입국
 - 2017년부터 3년 연속 몽골의 대한민국 수입액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11.7% 감소, 2021년에는 31%, 2022년에는 39% 증가

〈 한-몽 최근 3년 수출입 현황 〉

(단위 : 백만 달러, %)

연도	수출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무역수지
2019	267.0	1.8	27.8	31.1	239.1
2020	235.7	-11.7	21.4	-23.0	214.3
2021	308.7	31.0	223.3	942.7	85.4
2022.6	193.0	39.0	75.9	-18.7	117.1

자료 : 몽골 관세청

■ 주요 수출품

- 한국의 對몽골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기계류, 소비재 품목 등이며, 화장품과 의약품의 수출이 지속적인 증가세
 - 2021년 기준 담배, 화물차, 건설 중장비, 의약품, 유탄유 등 상위 5개 품목 수출액 비중은 약 31% 수준이며, 모두 증가세

〈 한국 對몽골 상위 10개 수출 품목 〉

(단위 : 천 달러, %)

순위	HS code	품목명	2021년		'22.6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2402.20	담배	31,230	12.5	22,357	63.5
2	8704.21	화물차 (5톤 이하)	22,657	41.2	9,853	-6.6
3	8429.52	굴삭기	20,329	116.8	6,992	-53.6

순위	HS code	품목명	2021년		'22.6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4	2710.19	휘발유와 그 조제품	16,457	40.7	7,106	2.0
5	3304.99	화장품	15,071	36.3	9,463	34.3
6	8708.99	자동차부품	8,931	54.3	3,732	-13.4
7	8703.23	승용차 (1,500~3,000cc)	8,778	51.6	5,147	21.3
8	8507.10	축전지	8,433	85.2	3,949	40.0
9	3002.15	면역물품	8,366	94.7	34	-99.3
10	2103.90	소스용 조제품	7,354	50.7	3,816	0.9
합계			384,715	41.9	234,616	28.2

주 : 순위는 2021년 전체 수출액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주요 수입품

● 한국은 몽골에서의 수입은 광물, 캐시미어 및 캐시미어 제품, 방직용 섬유류 제품 등 현지 특징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하고 있음

- '22년 6월 기준 對몽골 수입액은 약 1,795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2.6% 증가, 이 중 몰리브덴 정광 등 기타 금속광물(293%), 캐시미어 의류 및 스카프(각각 116%, 228%) 등의 품목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한국 對몽골 상위 10개 수입 품목〉

(단위 : 천 달러, %)

순위	HS code	품목명	2021년		'22.6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2613.90	몰리브덴 정광	9,428	53.3	11,143	293.7
2	6110.12	캐시미어 의류	3,843	-26.2	264	116.2
3	5102.11	캐시미어 염소의 털	1,835	3.8	-	-
4	0507.90	녹용과 녹각	1,247	106.1	423	93.8
5	2529.22	형석	886	-11.7	0	-100.0
6	6214.90	술, 스카프, 머플러	731	127.8	84	228.7

순위	HS code	품목명	2021년		'22.6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7	1603.00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의 추출물	652	77.4	394	97.6
8	6109.90	티셔츠, 조끼(편직물)	562	226.9	11	-97.7
9	6104.61	여성용 슈트	467	91.9	79	-34.9
10	6117.10	그 밖의 편직물	433	-31.9	13	-23.9
합계			24,949	21.5	17,949	112.6

주 : 순위는 2021년 전체 수출액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몽골 수출 성공 사례

- 바이어가 인정한 우수한 품질로 2개월 만에 초도 수출 성공
 - 여성 위생용품 제조업체 국내 기업 R사의 경우 바이어가 우연히 접한 제품의 품질을 높이 평가, 무역관에 한국기업 연결을 요청하여 최종 수출 성공
 - 무역관에서 최초 화상 상담 연결 후 2개월 만에 초도 수출 66,000달러 성약
-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으로 몽골 에듀테크 시장 선점
 - N사는 KOTRA 지사와 사업을 통해 울란바토르 무역관에 지사를 두고, 몽골 공교육에 'K-에듀 기술' 확산 사업에 성공
 - 몽골 국가 의료 면허시험 선진화 사업 참여, 시험센터 설치 및 테스트 기기 수출

나. 투자

■ 우리 기업 투자 진출 동향

- 2022년 상반기 기준 한국의 對몽골 직접 투자 금액(1994년 이후)은 5억 1,031만 달러
 - 1994~2022.6월 누적 투자금액은 5억 1,031만 달러, 신규 법인 수는 700개로 확인
 - 코로나19로 인해 신규 법인 수는 급감했으며, 투자금액 또한 2021년에는 600만 달러에 불과함

〈 한국의 對몽골 투자 현황 〉

(단위 : 개, 건, 천 달러)

연도	신규 법인 수	투자금액	신고 건수	신고금액
1994~2010	331	208,583	720	497,050
2011	53	44,123	136	59,987
2012	46	53,479	136	96,591
2013	32	48,942	120	60,849
2014	46	32,100	111	43,402
2015	31	38,141	113	83,279
2016	16	11,505	72	28,870
2017	33	13,569	79	21,346
2018	26	24,186	85	43,609
2019	45	15,845	93	25,205
2020	16	9,253	43	29,322
2021	17	5,946	37	8,898
2022.6	4	2,795	20	3,049
전체	700	510,318	1,785	1,004,014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업종별 투자 동향

- 광업 부문이 신고 건수, 신규 법인 수, 투자금액 등 면에서 가장 활발
 - 업종별로는 광업이 26.4%로 가장 비중이 높으며, 다음으로 도소매업(18.6%), 건설업(11.5%), 부동산업(11.4%), 정보통신업(5.9%) 등 상위 5개 분야가 전체의 약 74%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한국의 對동굴 업종별 투자 현황 〉

(단위 : 개, 건, 천 달러)

업종 대분류	신규 법인 수	투자금액		신고 건수	신고금액
		금액	비중		
광업	52	134,906	26.4%	310	337,812
도매 및 소매업	178	94,842	18.6%	416	157,754
건설업	84	58,689	11.5%	183	102,275
부동산업	43	58,282	11.4%	133	107,637
정보통신업	29	30,270	5.9%	69	46,069
제조업	98	26,507	5.2%	175	76,89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2	25,757	5.0%	43	46,97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1	19,474	3.8%	106	24,351
운수 및 창고업	21	14,836	2.9%	62	19,51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2	14,518	2.9%	76	24,087
숙박 및 음식점업	26	9,779	1.9%	36	16,950
금융 및 보험업	14	6,626	1.3%	35	7,073
농업, 임업 및 어업	17	5,414	1.1%	59	11,582
합계	700	510,318	100%	1,785	1,004,014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기업 간 협력 유망 분야 : 환경

- (몽골 수요) 몽골은 수도(울란바토르)의 비계획적 확대에 의한 토양·대기·수질오염, 지구온난화로 인한 사막화의 가속화, 무분별한 광업 개발에 따른 광해가 당면 문제
 - 특히 수도 울란바토르의 대기오염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몽골 정부가 수도 내 석탄 반입 금지(성형탄 사용), 게르 지역 축소를 위한 공공주택 건설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 중
 - 몽골 국토의 76%는 기후변화로 인한 사막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현지 정부가 국내총생산의 1% 이상을 사막화 대처 사업에 지출, 2030년까지 10억 그루 나무 심기 운동 발표 등의 정책 시행
 - 2020년 수립 '비전 2050' 장기개발전략에도 녹색개발을 키워드로 포함하였으며, 세계적인 탄소중립 트렌드에 동참하여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 대비 22.7% 감축 목표 발표
 - * 몽골의 온실가스 배출원은 에너지 부문 50%, 농업 부문 48%, 산업 1%, 폐기물 1% 수준
- 한국은 과거 급격한 산업발전 및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문제(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 오염)를 성공적인 정책으로 극복한 경험 및 기술을 보유
 - 수도 울란바토르 저소득층 지역(게르 지역) 재개발, 국립환경연구소 및 대기오염측정소 확충, 환경오염 측정망 구축 등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필요 있음
 -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는 신재생 에너지원 확대, 에너지 효율화, 지역난방소 설치, 폐기물의 재활용 및 처리 확대 등 사업 추진하고 있어서 해당 사업 위주로 진출 유망
 - 몽골 정부의 탄소중립 노력, 환경 개선을 위한 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폐기물 처리, 대기질 개선 사업은 청정개발체제(CDM)를 통하여 공동 추진 필요

■ 기업 간 협력 유망 분야 : 농업

- 몽골은 유목 국가의 전통을 오래 보유한 바 농업 기반이 미약하고 또한 농기계 제조업이 전무하므로 몽골 농기계시장과 스마트 농업시장 확대를 바탕으로 협력 및 진출 가능성 충분
 - 몽골 전체 농업 분야 수입의 8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나, 소비자들은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주요 국가에서 식량안보와 웰빙(well-being)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
 - 몽골 정부는 신선한 채소의 안정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 겨울 및 여름용 온실 하우스 복합체 개선, 농업기계류 개선에 이어 스마트팜 시장 확대를 추진 중
 - 친환경 유기농 농축산물을 생산해 한국은 물론 중국(내몽골, 동북지방)과 러시아(극동, 시베리아)의 고소득층 소비자를 공략하는 방법도 유망

2023

몽골 진출전략

III

진출전략



III

진출전략

- ※ 높은 한류 인기와 젊은 소비층을 보유, 한류 프리미엄 활용한 소비재 적극 공략
- ※ '10억 그루 나무 심기 캠페인' 등 탄소 절감 및 환경 개선 등 새로운 시장, 사업 기회 적극 공략 필요

1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몽골 SWOT 분석〉

강점 (Strength)

- 청년층 비중이 높은 젊은 국가로 소비인구 다대
- 높은 교육열과 한류를 바탕으로 한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인력 풍부
- 구리, 금, 석탄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여, 잠재력이 높은 신흥 개발국가
- 경제 침체 타개를 위한 대형 전략광산 개발 및 주요 국책 프로젝트 정부 재정 확대

약점 (Weakness)

- 내륙 국가로 인구 340만 명의 협소한 내수시장이자 산업 기반이 없는 한계점
- 물류, 유통을 비롯한 인프라 열악
- 행정절차의 불투명성과 부실한 처리능력으로 무역 통관 및 투자 진출에 애로가 잦음

기회 (Opportunity)

- 내륙국 한계 극복을 위한 제3의 이웃 정책 등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가능성 높음
-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투자환경 개선 노력에 따라 외국인 투자 증가 기대
- 제조 가공산업 육성 정책 적극 추진
- 세계적인 탄소중립 트렌드에 따라 무공해, 에너지 절감형 소비시장 확대 전망

위험 (Threat)

- 과도한 광업 의존형 경제구조로 국제 광물 시세와 수요 등 대외 변수에 취약함
- 연이은 대외부채 원금 상환 의무 이행에 따른 정부 재정 악화 우려
-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양 국가와의 관계 악화 시 경제적 리스크가 큼

전략 방향	세부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 한류 및 트렌드에 민감한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소비재 마케팅 강화
ST 전략 (강점 활용)	• 신부흥정책 추진에 따른 다양한 국책 개발사업 수주 확대
WO 전략 (기회 포착)	• 전자정부 확대, 디지털 교육 확대 추세에 따른 ICT 기술 및 서비스 진출 기회 포착
WT 전략 (위험 대응)	•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 관련 몽골 정부 정책기조에 따른 진출 기회 모색

진출전략
한류 프리미엄 활용 유망 소비재 프로모션
국제기구, 발주처 네트워크 강화
정부/지방정부 연계 ICT 로드쇼 확대
신규 사업 분야 및 기회 발굴, 선점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023년 진출전략

분야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한류 프리미엄 활용 유망 소비재 프로모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재) 한국계 유통점(이마트, CU, GS 편의점) 진출 확대에 따른 한국산 소비재 입점 확대 ○ (의료) 현지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의약품, 의료 장비 수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몽골 기업과의 협력 확대, 현지 생산 등 현지화 전략 - 다양한 ESG 활동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전략 ○ (건강식품) 도시인구 위주로 생활 수준 향상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한국산 건강기능 식품 수요 증가
新부흥정책 본격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新부흥정책 실행을 위한 각종 프로젝트(국경지역 물류 통관 개선사업 등) 참여를 위한 발주처 네트워크 강화 ○ (제조업 육성) 산업구조를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정책 적극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생산설비 및 장비, 기술협력 등의 사업 기회 다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전자개발통신부' 신설 등 본격적인 DT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행정 서비스의 전자화(e-mongolia) 및 각종 인프라 스마트화 추진 관련 정부 입찰 및 공공조달 프로젝트 확대 예상 ○ (민간) e-러닝, 디지털 교육 콘텐츠 및 플랫폼 개발 시장 성장, 현지 기업과 협력을 통한 진출 유망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시장) '10억 그루 나무 심기 캠페인' 본격 추진에 따른 관련 품목 및 장비 시장 공략 ○ (환경 개선) 대기오염 방지, 폐기물 처리 등 다양한 환경 개선 사업 참여 기회 확대
추진 목표	정부 주도 국책사업 및 새로운 시장 선점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진출전략 수립

2-1. 식지 않는 한류 열기, 한국산 소비재부터 의료 분야까지 수요 확대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뜨거운 한류 인기를 바탕으로 한국계 유통, 서비스 분야의 진출 확대 지속
 - 현재 화장품, 커피숍, 키즈카페, 패스트푸드, 한식당 등 서비스 프랜차이즈 진출 증가세
 - 라면과 떡볶이 등 간편식, 과자, 음료 등 제품 인기 대세
- ※ 도시 인구 증가 및 건강 관심 증대로 한국산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도 인기
 - 의약품 수입시장에서의 한국산 점유율 11.2% 비중으로 3위로 상승
 -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예방 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 수요 증가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K-드라마로 시작한 몽골에서의 한류가 한국 음식, 콘텐츠, 문화 전반으로 확산
 - 이마트, CU 등 유통업 프랜차이즈 진출과 동시에 한국 음식점, 의류, 화장품, 커피숍, 키즈카페 등 프랜차이즈 진출도 확대 추세
 - 현지인들은 한국계 프랜차이즈 진출을 환영하고 있으며, 한국산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음
 - 2016년부터 한국계 이마트 진출에 이어 CU, GS25 등 한국계 편의점 진출 확대로 현지 유통업에서는 한국계 프랜차이즈가 시장을 장악 중
 - 이마트는 현재 4호점 오픈 준비 중이며, CU는 271호점, GS25는 107호점까지 오픈한 상황

〈 현지 진출 한국계 유통 프랜차이즈 현황 〉

브랜드	설립 연도	점포 수	기타 정보
	2016	3	몽골 대기업 ALTAI HOLDING사의 자회사인 Sky Hypermarket사가 운영 중이며, 한국 (주)이마트는 10%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파악
	2018	271	몽골 PREMIUM GROUP사가 자체 Central Express CVS 자회사를 통해 CU를 마스터 프랜차이즈권으로 운영 중임
	2021	107	몽골 대기업 Shunkhlai group사의 자회사를 통해 마스터 프랜차이즈권으로 운영 중이며, 2021년 3월 오픈 이후 빠른 속도로 지점을 확대하고 있음

자료 : KOTRA 울란바토르 무역관 자체 조사

- 도시 인구 증가 및 건강 관심 증대로 한국산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도 인기
 - 몽골은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80% 이상, 의료 장비의 경우 전량을 수입에 의존
 - 현지 열악한 보건의로 인프라 및 의료 시스템으로 한국을 포함 해외 방문 환자 수도 증가 추세
 - 몽골의 약 8만 명 이상이 매년 해외 의료 서비스에 1억 2천만~1억 5천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며, 한국을 방문한 몽골 환자는 2021년 기준 총 9,145명으로 전체 외국인 환자 145,842명 중 6.3%를 차지
 - * ('17년)13,872명 → ('18년)14,042명 → ('19년)17,918명 → ('20년)6,102명 → ('21)9,145명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진출전략) 소비재의 경우 한국계 프랜차이즈 운영 업체들을 통한 진출이 효과적이며, 의료의 경우 현지 유력 파트너와의 협업이 필요
 - 한국계 프랜차이즈 운영업체들에게 제품을 납품하는 현지 업체 또는 프랜차이즈 운영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진출이 관건
 - 프랜차이즈 운영업체들은 모두 자체 수입 유통 자회사를 두고 있어 이들과 협력 또는 납품업체를 통해 제품을 입점할 수 있음
 -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록 절차 완화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복잡한 면이 많아 통상 현지 파트너를 통해 등록 및 유통시키는 것이 일반적임
 - 또한 현지 유력 파트너와 협력하여 의약품 생산 공장 설립을 통한 시장 진출 및 원료 수출 기회 모색 필요
 - * 현지 유력 파트너 : MONOS, ASIA PHARMA, MEIC, TAVIN US, MUNKHIIN TUN, PALOMA EURO PHARMA, MONGOL PHARMA 등
- (유망 품목) 소비재의 경우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의 수요가 증가세, 의약품의 경우 항생제와 비타민 수요 지속
 - 전체 인구 중 35세 미만 인구 비중이 62%, 60세 미만 인구 92% 비중으로 청년인구 및 경제활동 인구 대상으로 화장품, 농수산식품, 생활용품 등 수요 증가
 - CU 및 GS25의 점포 수 확대에 따라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라면, 떡볶이, 도시락 등 간편 조리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2021년 기준 항생제(HS 3004.2) 수입 규모는 전체 의약품 수입 중 8%, 비타민(HS 3004.5) 수입 규모는 5% 비중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의료장비의 경우 X-ray, MRI, 인공호흡기 등 대형 기계부터 혈압계, 혈당측정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 수요도 꾸준히 증가세

2-2. 제조업 육성정책에 따른 관련 설비 및 장비, 기술협력 등 기회 활용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GDP의 25%, 산업의 70%, 수출의 90% 이상이 광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만큼 과도한 광업 의존형 경제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조업 육성 정책 추진
 - 광업 중심의 광물 가공산업과 농업 중심의 농축산물 가공산업에 대한 정책적 육성 계획
- ※ 최근 제조 가공산업 육성에 혁신기술 도입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으로 혁신산업에 필요한 설비, 기계장비 등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 면제 시행
 - 2018년에 혁신기술 제품 생산에 필요한 113종 장비 및 기계, 기자재 목록을 확정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 시행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비전 2050' 장기개발정책으로 GDP 중 광물 채굴업 비중을 축소하고, 광물 및 농축산물 제조 가공산업 비중 확대 계획
 - 2021년 기준 GDP 구성 중 광업 25.4%, 농업 13%, 유통업 15.5%, 제조가공업 8.5% 비중으로 몽골 경제에서 광업, 농업, 유통업 비중이 높음
 - 산업생산의 70%, 총수출의 90%를 차지하는 만큼 과도한 광업 의존형 경제구조의 다변화를 위해 산업 다각화, 즉 제조 가공산업 육성정책을 추진 중
 - 혁신기술에 기반한 광물 가공산업 및 농축산물 가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함
 - * '비전 2050'에 제조가공업 비중을 '30년 14.6%, '40년 20.3%, '50년 24.4% 수준 향상 계획
- 新부흥정책의 6가지 카테고리 중 3순위로 산업의 부흥을 강조하고,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 6개 목표를 세움
 - 해당 6개 목표에는 1) 광물자원의 매장량 추가 확보, 2)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광업 중심의 중공업 육성, 3) 원유 매장량의 확대를 통한 내수 수요 충족, 4) 농축산물의 가공량 증대, 5) 농축산물 고도 가공을 통한 완제품 생산 및 수출, 6) 혁신산업 및 디지털 경제에 기반한 산업 육성 등임
 - 중공업 부문에서 TT 석탄가공 플랜트, OT 및 에르데네트 광산을 중심으로 구리정광 가공 플랜트, 철광석 가공을 위한 ALTAN SHIREET 철강 플랜트 등의 설립 및 중공업 단지 구축 등을 계획 중
 - 경공업 부문에서 가죽, 털, 고기 등 축산물의 가공량 증대를 위한 클러스터 공장 구축, 축산물의 해외 수출을 위한 검역 기준의 향상 및 철도 운송을 위한 물류 시설 확충 등을 계획 중
 - * 정책 추진 목표로 축산물 가공 비중을 60%로 올리고, 원유 수요의 50%, 철강제품의 80% 비중을 자체 공급코자 함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중공업 관련 석탄 가공공장 및 철강 공장, 구리정광 가공공장 등의 프로젝트 추진 계획으로 해당 공사 참여, 관련 기자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경공업 분야 가죽 가공공장, 양털 및 캐시미어 가공공장, 육가공공장 등에 대해 정책적 육성을 계획 중인 바, 해당 사업 진출도 유망

 - 상기 가공업 관련한 혁신 기술 수요도 다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분야 양국 기업체 간에 기술협력도 필요함
 - 2020년 정부 방침에 의하면 IT, 신소재 제조, 바이오 기술, 신재생 에너지용 기술, 문화 및 서비스 관련 혁신 기술의 수요가 확대 예상
 - * 정부 결정문 링크: <https://legalinfo.mn/mn/detail?lawId=210926&showType=1>

- 몽골 정부가 주력 육성을 계획 중 광물 가공업 및 축산물 가공업 관련 자체 공급 불가한 원료, 기자재, 소재 등 품목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중공업 부문 플랜트 건설을 위한 기자재, 기계류 등은 물론 플랜트 가동 시 필요로 하는 원료, 화학 약품 등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몽골 정부는 2018년 정부령으로 기존에 실시 중이었던 중소기업용 설비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 면제 조치를 '혁신산업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기계장비로, 원료, 소재'로 갱신하여 해당 목록을 공개함
 - 해당 목록에는 축산물 가공기계류(2종), 수의약품 생산 관련 장비(16종), 의약품 생산 관련 장비(11종), 농산물 재배 관련 장비(18종), 농산물 보호 약품 생산 관련 장비(9종), 사료 생산 관련 장비(10종), 농업 및 비료 생산 관련 장비(47종) 전체 113종 품목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키로 함
 - * 관련 목록 링크: <https://legalinfo.mn/mn/detail?lawId=208635&showType=1>

2-3. 전자개발통신부 신설 등 디지털 전환 추진 가속화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몽골 정부의 행정 서비스 전자화 및 기간시설의 스마트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에 따른 사업 참여 가능성 확대
 - 현지 각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서 행정 서비스 전자화를 지속 추진 중
- ※ 민간을 위한 원격 진료 서비스, 디지털 교육, e-러닝 등 각종 디지털 전환 서비스 수요 증가
 - 각종 온라인 교육 콘텐츠 및 온라인 응시 프로그램 등 개발 수요 증가
- ※ 울란바토르시 밀집화 해소를 위한 위성도시 구축 및 관련 사업 유망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몽골 정부는 2005년부터 행정 서비스의 효율화, 신속화, 행정절차의 투명화, 관료주의 및 부패 척결을 위해 '전자정부' 프로그램 추진 중
 - 몽골은 2018년부터 에스토니아의 전자정부 모델 학습을 통해 정부 서비스 종합 포털 www.e-mongolia.mn를 개발하여 전체 600여 가지 서비스 제공 중
 - 울란바토르시 자체적으로 <https://service.ulaanbaatar.mn/home> 온라인 비즈니스 센터를 개설하여, 82가지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직접 제공 중
 - 2020년 발표 장기개발정책 '비전 2050'에도 '좋은 정부(good governance)' 카테고리에 '디지털 몽골'이란 제목 하에 정부의 행정 서비스를 30년간 단계적으로 전면 전자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전자개발통신부는 2022년 5월 18일 장관령으로 향후 5년간 디지털 전환 정책 방향을 확정함
 - 동 정책은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효율적이고 작은 정부조직을 구축하고, 경쟁력 있는 디지털 국민을 육성하고,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켜 몽골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임
 - 이 중 경제 부문에서 농업, 보건의료산업, 교육산업, 광업, 도로교통 물류산업, 건설업을 비롯한 전 경제 부문에 디지털 기술 도입을 통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계획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몽골 정부 디지털 전환 정책에 따른 농업, 교육, 보건의료 부문에서 디지털화 사업 위주로 진출 유망
 - 농업 분야에서 IoT, AI 등을 활용한 자동화된 스마트팜 도입으로 수확량의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몽골 후렐수흐 대통령의 제안으로 '식품의 공급 안정화' 캠페인 추진에 따라 수입에 의존하는 채소류의 자급자족을 위한 스마트팜 수요 증대
 - * 일례로 현지 대기업 프리미엄 그룹사가 한국의 P사와 협력하여 향후 5년 간 전체 5,000억 투그릭을 투자하여 4,700m² 면적에 수경 재배 농장을 설치하기로 함
 - 교육 분야에서는 원격교육 실시를 위한 통합된 디지털 교육 플랫폼 개발 및 콘텐츠 제작 지원, 수능 및 언어능력시험 등의 디지털화 계획 중
 - 디지털 원격 진료 서비스 도입으로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및 환자들의 진료 이력 등 정보의 데이터화 사업 구축 예정

- 스마트시티 및 물류 시스템 개선을 통한 인구 분산 및 경제 활력 제고
 - 수도권 울란바토르시 인구 분산을 위한 위성도시 '뉴 준모드', '마이다르' 등을 스마트시티로 개발코자 하여 해당 사업도 참여 유망
 - 울란바토르시의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스마트 교통 시스템 도입, 통행료 및 주차비 등의 자동 지불 시스템 구축, 기존 우편 서비스 인프라를 토대로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물류 운송 시스템 구축

2-4. 몽골 정부,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트렌드 동참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몽골 정부는 탄소중립 노력에 동참, 2030년까지 전체 22.7% 수준으로 배출량 감축을 약속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화석연료 사용 감축,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폐기물 재활용 확대 등 일련의 사업 추진을 계획
- ※ '10억 그루 나무 심기 캠페인' 추진 등 연간 GDP의 1% 이상을 조림사업 및 녹색산업에 지출 예정
 - 임업용 기계·장비, 조림용 모종과 묘목 등에 대해 관세 및 부가세 면제 추진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세계적인 탄소중립 트렌드에 동참코자 몽골 정부는 2030년까지 BAU 대비 22.7% 비중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
 - 몽골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 규모는 총 3,440만 톤 CO₂eq며, 분야별 배출원은 에너지 부문 50.05%, 농업 부문 48.51%, 산업 부문 0.95%, 폐기물 부문 0.46%임
 - 2030년까지 목표 감축 규모는 총 1,680만 톤 CO₂eq로, 분야별 감축 비중은 에너지 분야 66.7%, 기타 분야(농업, 산업, 폐기물) 분야는 33.3%임
 - 에너지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및 가축 두수 절감, 산업 플랜트 폐열 재활용,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 등의 주요 사업들을 계획 중
- 몽골의 후렐수흐 대통령 온실가스 흡수량 확대 및 사막화 확산 방지를 위해 '10억 그루 나무 심기' 캠페인 추진을 발표
 - 지난 80년간 몽골의 평균 기온이 2.25℃ 상승하였으며, 전 국토의 77% 비중이 사막화 영향을 받는 상황.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몽골의 전 지역이 2050년까지 기후변화에 극취약한 국가로 변모 우려
 - 따라서 몽골 대통령의 제안으로 2030년까지 전체 10억 그루의 나무를 심음으로써 사막화 토지 비중을 4%, 온실가스 배출량을 60만 톤으로 각각 감축할 수 있으며, 산림지역 국토 비중을 7.9%에서 9% 수준으로 올릴 계획임
 - 동 캠페인 추진으로 매년 국내총생산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금을 사막화 방지를 위한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으며, 중앙정부 및 지자체 예산 중 일정 비중을 친환경 산업개발 및 녹지 조성에 지출할 것을 지시함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탄소 배출량 감축 및 사막화 방지를 위한 녹색 개발 사업 위주의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관 협력 형태로 추진할 사업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
 - 몽골 정부는 장기개발정책 '비전 2050'의 첫 10개년 개발 계획으로서 新부흥정책을 발표했으며, 유해 폐기물 처리장 건립, 10억 그루 나무 심기 운동, 청마(Blue Horse) 댐 건설 사업 등의 사업들을 PPP로 추진할 것으로 계획 중
 - 해당 사업 모두가 몽골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서 투자자를 찾고 있는 프로젝트들이며, 몽골 자연환경관광부가 발주처임
- 사막화 확산 방지를 위한 조림 사업에 필요한 임업용 기계·장비, 친환경·저탄소 에너지 절감형 제품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향후 10년간 대대적인 조림 사업 실시를 계획하고 있어서 조림 사업을 위한 씨앗, 모종, 묘목, 임업용 기계 및 장비, 관개 시스템 등의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
 - 주요 탄소 배출원인 에너지 부문의 탄소 배출량 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감형 또는 친환경 제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일례로 전기차 수입의 경우 2022년 8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90% 증가한 것으로 파악
 - 따라서 전기차 유지관리와 연관된 전기차 배터리, 부속품, 충전 인프라 등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서 해당 품목 위주로 시장 진출이 유망
 - * 몽골은 '관세율법'으로 각종 농기계, 임업용 기계·장비류, 조림용 모종과 묘목, 신재생 에너지 발전용 기자재, 에너지 절감형 난로 및 히터, 천연가스 관련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등에 대해 부가세 및 관세를 면제 추진
 - ** LPG차와 전기차 등의 경우 부가세 및 관세가 부과되나, 특별소비세가 전기차에 대해 90% 면제, LPG차에 대해 50% 면제 추진 중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수출 유망 품목〉

품목명 1	HS Code	3004.90	수입관세율 (%)	5
의약품	수입액 ('22.8월/US\$백만)	101.4	대한 수입액 ('22.8월/US\$백만)	11.2
	선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몽골 의약품 시장은 '19년부터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 '20년부터 증가세 ○ '22.8월 기준 한국은 2위 수입국으로 확인되며, 현지 수요에 따라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추정 		
	시장 동향	○ '21년 기준 수입액은 1억 3,311만 달러로 전년 대비 63.5% 증가		
	경쟁 동향	○ 몽골의 주요 의약품 수입국은 러시아, 슬로베니아, 독일, 인도, 헝가리 등. 이들 상위 5개국 수입시장 비중은 57%이며, 한국은 6위 수입국으로 7.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진출방안	○ 의약품 판매를 위해 수입 유통 특허 취득 외에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는 상당의 기간과 노후가 필요하므로 현지 유력 파트너와의 협력이 관건		
품목명 2	HS Code	3304.99	수입관세율 (%)	5
화장품	수입액 ('22.8월/US\$백만)	21.1	대한 수입액 ('22.8월/US\$백만)	13.5
	선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만 해도 수입 4위국 자리를 차지했으나 2020년부터 1위국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 ○ '21년 기준 한국의 5위 수출품목, '22.8월 기준 2위 품목 등 지속적인 증가세 유지 		
	시장 동향	○ '21년 기준 수입액은 2,32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0%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43개국에서 화장품을 수입한 것으로 확인		
	경쟁 동향	○ 몽골의 최대 수입국은 한국으로 비중은 19%이며, 다음으로 폴란드, 러시아, 일본, 프랑스 순		
	진출방안	○ 인증 취득 필요 없고 단순 샘플 검사만 진행하여 위생증명서, 원산지증명서, GMP 등 품질증명서 제출 등으로 통관 절차가 편리한 편		
품목명 3	HS Code	1905	수입관세율 (%)	5
과자	수입액 ('22.8월/US\$백만)	43.5	대한 수입액 ('22.8월/US\$백만)	2.3
	선정 사유	○ 현지 바이어들의 인콰이어리 수요 확대		
	시장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몽골은 빵류에 대한 제도가 이뤄지고 있으나 과자 등 간식류 제품 생산은 미약 ○ '21년 기준 수입액은 5,189만 달러로 전년 대비 35.1% 증가했으며, 금년 8월까지 수입액은 47.8% 증가한 것으로 확인 		
	경쟁 동향	○ 해당 제품을 40여 개국에서 수입하며, 최대 수입국은 러시아, 다음으로 터키, 베트남, 인도, 그리고 5위 수입국은 한국으로 확인		
	진출방안	○ 단순 샘플 검사 외에 현지에서의 취득 절차 등은 없으며, 수출자 측에서는 위생 및 원산지증명서, 품질증명서만 요구되고 있어 직수입 또는 현지 바이어를 통한 진출이 가능		

품목명 4	HS Code	1902.30	수입관세율 (%)	5
라면	수입액 ('22.8월/US\$백만)	22.0	對한 수입액 ('22.8월/US\$백만)	6.7
	선정 사유	○ 현지 라면 수요 증대에 따른 수입 업체들로부터의 라면 수입 수요 증가세 및 무역관으로부터 인콰이어리 접수		
	시장 동향	○ '21년 기준 수입액은 2,035만 달러로 전년 대비 7% 증가했으며, 20여 개국에서 수입 중		
	경쟁 동향	○ 몽골의 라면 최대 수입국은 중국, 한국,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인도네시아 등이며, 한국은 꾸준히 2위국 자리 유지하고 있음		
	진출방안	○ 한국 드라마 등 K-문화의 흡수가 빠른 편으로 한국에서 트렌드가 되는 모든 식품의 경우 즉시 진출이 유망		
품목명 5	HS Code	8703.80	수입관세율 (%)	5
전기차	수입액 ('22.8월/US\$백만)	4.1	對한 수입액 ('22.8월/US\$백만)	0.15
	선정 사유	○ 몽골은 수입 차량 대상으로 관세, 부가세 외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며, 이는 약 115~10,150달러임 ○ 반면 전기차의 경우 특별소비세가 100% 면제되며, 울란바토르시에서 추진 중인 차량 5부제 면제 혜택 등 여러 장려 정책으로 향후 그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시장 동향	○ '22.8월 기준 전기차 수입액은 455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90% 증가		
	경쟁 동향	○ 최근 5년간 몽골의 전기차 주요 수입 대상국은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순 ○ 한국이 선두를 유지해왔으나 지난 3년 연속 감소세인 반면 중국 수입은 3년 연속 증가세		
	진출방안	○ 기존 차량 수입 달러를 통해 진출 협력이 가능할 것이며, 다만 아직 몽골에서는 중저가 위주의 차량 수요가 높은 바, 전기차도 이러한 현지 소비자 취향에 맞는 가격 모델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수출 유망 품목〉

품목명 1	세부 내용	
온라인 교육	선정 사유	○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을 증가 또는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및 비대면 교육으로 인해 온라인 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시장 동향	○ '22년 상반기 기준 스마트폰 사용자 수는 383만 명으로, 이 중 Android 사용자 수는 71%, IOS는 21% 차지 ○ 인터넷(4G/LTE) 사용량은 22만TB로 전년 동기 대비 35.5% 증가했으며 연속 증가세 유지
	경쟁 동향	○ 미국, 영국 등 해외 기업들의 온라인 교육 진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학교 설립도 하고 있음 ○ 특히 SNS를 통한 온라인 교육 홍보 및 수요가 증가세
	진출방안	○ 몽골 정부 및 교육부에서의 비대면 교육 확대 정책에 따른 진출 포인트 공략
품목명 2	세부 내용	
드럭스토어	선정 사유	○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유통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약국에서 화장품 등 소비재 구입 수요 확대 ○ 또한 한류 인기가 지속되면서 K-Beauty 및 한국식 드럭스토어에도 관심이 높음
	시장 동향	○ 현지 약국 및 화장품 매장 수 지속적으로 확대 중 ○ 현지 체인 약국은 화장품과 유아용품(이유식 포함) 등 품목 코너를 추가 및 확대하여 운영하기 시작 ○ 현지 의약품 유통업체들이 해외 드럭스토어 프랜차이즈 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음
	경쟁 동향	○ 의약품 건강기능식품·화장품을 동시에 판매하는 드럭스토어의 인기가 증가 하면서 현지 대기업들은 자체 체인보다 해외 프랜차이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현재로서 해외 드럭스토어 프랜차이즈가 진출하지 않은 상태라 유망한 시장임
	진출방안	○ 현지 의약품 수입 유통업체들의 한국식 드럭스토어 프랜차이즈 진출 문의가 많아 현지 의료 분야에서 활동 중인 업체를 통한 진출이 효과적일 것임

첨부 3 '23년도 KOTRA 주요 사업

■ '23년 울란바토르 무역관 주요 사업

연번	구분	사업명	시기/장소
1	소비재 진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몽골 뷰티 엑스포(23.3.3~5) 연계, 내수 및 수출 초보 미용기업 제품 전시 및 바이어 발굴 - 몽골 뷰티 엑스포는 '22년 제1회 행사를 개최했으며 한국관 운영을 통해 홍보 성과 거양 	1분기/울란바토르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몽골 대형 유통망 연계 소비재 판촉전 개최 - 현지 진출 한국계 유통망(이마트) 연계, 한국 식품, 생활용품 등 판촉행사 개최 	3분기/울란바토르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몽 농수산식품 박람회 (대사관 협력사업) - 한국 우수 식품기업 초청 현지 박람회 및 판촉 행사 개최 	4분기/울란바토르
4	I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몽골 에듀테크 파트너링 - 몽골 에듀테크 시장 진출을 위한 한국기업 로드쇼 및 상담회 개최 (약 10개 사) 	2분기/울란바토르
5	투자 진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몽골 투자법 개정 및 투자 진출 설명회 - 외국인투자법 개정 및 주요 프로젝트 소개 	3분기/울란바토르
6	보건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디컬 코리아 인 몽골리아 - 몽골 'Medical Technology' 전시회 연계, 한국관 운영 (참가기업 약 10개 사 모집) 	4분기/울란바토르
7	ES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몽골 기 진출/진출희망 기업의 ESG 활동 지원 - 본사 신청 후 선정된 기업 2~3개 사 지원 	연중/울란바토르
8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몽골 환경산업 진출 사절단 지원 - 몽골 대기오염 개선, 폐기물 처리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사절단 파견 및 상담회 개최 	3분기/울란바토르

첨부 4 '23년도 정치·경제 주요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사이트
정기 국회 (봄)	2023.03.01	www.parliament.mn
정기 국회 (가을)	2023.10.15	www.parliament.mn
국회 예산 심의	2023.11.15	www.mof.gov.mn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사이트
Beauty Expo 2023	2023.03.03~05	www.expomongolia.mn
MONGOLIA MINING 2023	2023.09.27~29	www.mongolia-mining.com
BUILD MONGOLIA	2023.04.20~22	www.buildmongolia.com
BARILGA.MN	2023.05.05~07	www.barilga.mn
Medical Technology 2023	2023.10.06~08	www.misheexpo.mn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홍성우	관장	울란바토르 무역관	(+976)7711-0140	aquacool@kotra.or.kr
2	A. Nandintsatsral	Senior Specialist	울란바토르 무역관	(+976)7711-0140	nandin@kotra.or.kr
3	M. Lkhagvasuren	Specialist	울란바토르 무역관	(+976)7711-0140	suren@kotra.or.kr

윤리경영·청렴 레터

KOTRA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귀하(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OTRA는 윤리경영·청렴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고객 여러분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 첫째,**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명예와 자존심을 소중히 여기며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건설에 앞장선다.
- 둘째,** 행동강령에 어긋나는 금품·향응을 거부하고,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과 청탁도 배격한다.
- 셋째,**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한다.
- 넷째,** 항상 사람을 최우선하고, 임직원, 고객, 협력사, 유관기관,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준수를 위해 노력한다.
- 다섯째,** 안전의식을 가지고 위험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 여섯째,**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공헌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한다.

다시 한 번 깨끗하고 공정하고 일 잘하는
KOTRA가 될 것임을 약속드리며,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23
몽골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